

서 정 윤

### 나 자신

아직도 가슴에 거짓을 숨기고 있습니다.

늘상 진실을 생각하는 척하며  
바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만은 그 거짓을 알고 있습니다.



나조차 싫어지는 나의 얼굴  
아니 어쩌면 싫어하는 척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인간적, 인간적이라는 말로써  
인간적이지 못한 것까지 용납하려는  
알량한 '나'가 보입니다.

자신도 속이지 못하고  
얼굴 붉히며 들키는 바보가  
꽃을, 나무를, 하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웃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그냥 웃음이기에 더욱 아픕니다.

언제쯤이면 나도

가슴 다 보여 주며 웃을 수 있을지요.  
눈물나는 것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 ◀그뻘 그랬지▶ 학창시절의 가방

“여고시절 3년 동안 정들은 자주색 가방 비기 오나 눈이 오냐...” 모든 학생들의 가방이 똑 같은 모양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교련시간에 필요한 간호가방 한 개가 더 있었습니다. 남학생들 중 약간 노는 아이들은 가방끈을 가운데가 아니라 끝 부분을 잡고 침 좀 뺏고 다녔습니다.

어느 덧 그 날의 가방만 보아도 가슴이 저미어지는 나이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아려지는 마음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4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11월25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쁨과 슬픔이 함께



말을 타고 밤에 사막을 횡단했던 세 사람에게 대한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마른 강바닥에 다가가고 있을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말에서 내려 돌을 주워서 각자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 아침까지 꺼내 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시대로 하면 그들에게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다시 말에 올라 타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새벽 미명이 하늘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세 사람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돌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그리고 다른 보석들로 변해 있어 무척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돌을 주운 만큼 주워서 기쁘지만 후회되는 것, 특히 정말 후회되는 것은 더 많이 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에 대해 기뻐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상에 대해 즐거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도 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19-20』

#### ◀말씀따라 행하기▶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롯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되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승리한다

#### ◀인품따라 행하기▶

남이 불행에 빠졌을 때  
그것을 꼬소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 불행함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친히  
체험하게 해 주실지도 모른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38장	다 같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189장	다 같이
기 도 Pray		최재학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 11:22-2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바나바 교인	소원섭 목사 (가곡교회)
찬 송 Hymn	135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85      총액: \$ 405,722.70

◆12월 예배위원◆

◆12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25	최재학		현관:권광순 정희자 Hall 입구: 노은숙 임혜자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2	현석호		
9	고성일	최현철 서재오	
16	권광순	항준직	
23	김교섭		
25	김영길		
30	노은숙		

	주일 & 예배	모임 행사
2		안수집사회(3)
16		정기구역예배(7)
23	성탄주일	연말당회(8)
25	성탄절	선교회총회(16일)
30	송년주일	성탄축하행사(23)
31	송구영신예배	세례식(25)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간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하고는 가나 아니 가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아라” (피천득 ‘인연’ 중에서)...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은 심정의 수필이지만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는 보내고 싶지 않은 시간의 넘두리이고 싶습니다.

### 1.교우소식

<부상> 강병경 성도. 업무 중 손을 다쳤습니다. 쾌유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결혼> 유승훈 군(유종옥 집사.청년부) 허초록 양(허필성 집사.청년부)

<12월 1일(토) 오후 1시. St Matthew's Church>

### 2.오늘 말씀: 가곡교회 소원섭 목사. 말씀 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봉 자원방래 하여 옛 그리운 기억을 꺼내며 밤을 보냅니다.

### 3.세례,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신청> 담당 구역장

<세례일> 12월 25일(성탄절) <신청자격> 유아세례:만 4세 이하 어린이

세 려: 교회출석 6개월 이상

\*구역장:구역 내 세례,유아세례 대상교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모임:안수집사 연말 “감사의 모임” (예고)<일시> 12월 3일(월) 저녁 7:30분

### 5.인도자.구역장 Alpha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6:35분>

### 6.금주수요일예배:수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같은 마음 모아 드리는 집중기도는 그 역사하시는 능력도 크십니다.

### 7.새벽기도회<매주 금요일 새벽 5:50> :새벽부터 말끔히 준비했을 이 목사님의

양복차림을 보면 새벽의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 ◀착한 시인들▶ 사랑해야 하는 이유

문정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강물을 나눠 마시고  
세상의 채소를 나누어 먹고  
똑같은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의 돌맹이를 던지며 운다는 것이라네

바람에 나뭇굴다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나뭇잎이나 쇠똥구리 같은 것으로  
똑같이 흠어지는 것이라네

내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래선 안된다고 하면서도 또  
얼마나 사랑과 미움으로 내 앞  
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까....

죽음처럼 사랑했다가 날이 선  
칼날처럼 돌아서는 그런 사랑  
말고 가슴에 담고 따뜻하게 여  
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랑, 너는  
내가 아니기에 사랑으로만 우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랑.....그런 사랑 실컷 하다가  
무거워진 풀잎의 이슬처럼 땅으  
로 떨어져 스며들고 싶습니다.